

'최저임금 효과' 임금 격차 줄었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 17% ... 1년 새 2.1%포인트 감소 시간당 임금, 정규직 4.7% 늘고·비정규직 6.8% 증가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지난해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줄고 임금 격차도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도 6.8%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6월 기준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17.0%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10.9% 올랐으며,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 비중 하

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저임금 노동자는 월별 중위임금(지난해 278만5000원)의 3분의 2인 186만7000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뜻한다.

임금 상위 20%와 하위 20%의 평균 임금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지난해 6월 4.50배로 전년 같은 기간(4.67배)보다 떨어졌다.

상위와 하위의 임금 격차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으로, 이 역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 6월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노

동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2만573원으로 전년 동월(1만9522원) 대비 5.4% 증가했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2만2193원으로 4.7%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1만5472원으로 6.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시간당 평균 임금(3만4769원)을 기준으로, 300인 미만 사업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1만4856원)은 42.7%였다.

이는 전년 동월(41.8%)보다 높아진 것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과 300인 미만 사업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격차도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다.

같은 기간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152.4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4시간 감소했다. 주 52시간제

시행 영향보다 근로일수가 0.3일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노동자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률은 모두 90%를 웃돌았다.

다만, 비정규직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74.0%에 그쳤고 건강보험(64.2%)과 국민연금(61.0%) 가입률도 낮았다. 비정규직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97.3%로, 정규직(97.8%)과 비슷했다.

한편 근로실태조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과 노동시간 등에 관한 조사로, 국내 3만3000개 표본 사업체와 해당 사업체에 속한 근로자 98만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896.15 (+16.77)	↑ 금리(국고채 3년)	1.046 (+0.011)
↑ 코스닥	635.16 (+6.39)	↑ 환율(USD)	1232.20 (+2.50)



신성자동차, 광주전시장 손 소독제 증정 캠페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공식딜러 신성자동차는 광주전시장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손 소독제 증정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를 함께 이겨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번 캠페인은 전시장에서 신규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키오스킨 핸드크림+100' 손 소독제를 제공한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

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신성자동차는 코로나19 확산 직후 '전시장 상시 소독'은 물론, 매달 '영업장 전 구역 방역'과 '서비스센터 입고 차량 살균·소독 서비스', '통합 서비스 패키지(ISP)기간 연장', '픽업 앤 딜리버리 서비스 확대 운영' 등 코로나19 고객안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전, 2000만원 상당 나주 농산물·1500만원 상당 마스크 기증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중갑)은 22일 2000만원 상당 나주 농산물을 구매해 복지기관 35곳에 전달하고 직원들이 조성한 '러브펀드' 기금 1500만원으로 자체 제작한 면마스크를 나주시 자매마을과 외국인 유학생에 전달했다. 박한규(오른쪽 세번째) 한전 상생발전본부장이 강인규(왼쪽 네번째) 나주시장에 후원물품을 전하고 있다. <한전 제공>

광주 2월 주택담보대출 급감 ... 8대 특·광역시 중 최다 감소

광주지역 올해 2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감소금액이 8대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거래가 부진하고 주택매매 규제가 강화된 이유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광주전남지역본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2월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광주지역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전월에 비해 2658억원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주담대는 1월보다 9999억원 증가했지만, 광주 감소폭은 경남(-2703억) 다음으로 컸다.

광주 주담대 감소금액은 인천(-1437

억), 울산(-1032억), 대구(-331억) 등 주요 광역시 감소폭을 크게 웃돌았다. 서울(1조4786억↑)과 경기(6644억↑), 부산(67억↑), 세종(29억↑) 등은 오히려 주담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주담대는 전월보다 353억원 감소했다.

한은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광주지역 주담대가 급감한 것에 대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정부 규제가 강화된 영향"으로 분석했다.

실제 통계청 '민간아파트 분양시장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신규 분양세대수는 올 1월부터 석 달째 '0'을 유지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해양에너지, 모바일 고객 서비스 'HY-CS' 구축

해양에너지는 지난 21일부터 각종 정보를 모바일로 조회해 실시간으로 고객에 전달할 수 있는 'HY-CS' (해양에너지 고객서비스)를 구축·적용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해양에너지는 광주·전남지역에 도시가스과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

최신 IT플랫폼을 적용한 이 서비스는 점검·점검·계량기·체납·초기공급·민원업무 담당 직원들이 외부에서 업무를 진행한 이후 고객의 요청에 따라 실시간 정보 조회를 통해 즉각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양에너지는 지난해부터 차세대 IT

플랫폼 구축사업을 시작해 왔다. 올해는 경영자 정보시스템 플랫폼인 'DW/EIS'를 구축했으며,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2단계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 안전점검원 차량에 탑재된 네비게이션을 통해 각 시설별 특성과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HY-SR+' 시스템을 도시가스 업계 최초로 개발·적용하고 있다.

김형순 대표는 "이번 차세대 IT 플랫폼 개발 및 적용으로 고객과 직원의 업무 접점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보일러설비협회, 업계 혼선 예방 업무협조 요청

전국보일러설비협회(회장 문쾌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업계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안내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협회는 전국 지부·지회에 관련법 시행 공문을 발송하고, 관할 지역 보일러 설비업자에 대한 업무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1종과 2종 보일러 설치 판단 기준과 '기존 일반보일러' 판매 유효기간 등 현장 업무에 필수적인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총 77개 특·광역시와 시·군에서 환경부 인증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법에 따라 보일러 설비 종사자들은 응축 배수구와 상향식 배기구 설치가 가능한 경우 환경표지인증받은 '1종 보일러'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현장 조건이 불가능할 때만 환경표지인증받은 '2종 보일러' (친환경 일

반보일러)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아직 환경부의 2종 보일러 인증이 이뤄지지 않아 오는 9월 30일까지 기존 일반보일러도 설치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뒀다.

기존 일반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는 현장 조건은 설치 장소에 응축 배수구가 없거나, 구조적 장애물로 배수에 지장이 있는 경우, 벽에 1회 구멍을 뚫어도 상향식 배기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설의 설치를 위해 응축 배관에 보온 단열재를 사용해도 동결이 발생하는 지역이나 현장인 경우 등 6가지다. 이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기존 일반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다.

또 9월 30일까지 유효기간이 끝나더라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는 기존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기틀보일러는 사용지역 대부분 대기관리권역 밖 지역으로 기존 보일러를 설치해도 된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